



서산문화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숨결** | 비매품(통권 제321호)

발행일 2010년 7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남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제 321 호

2010. 7. 10

스산의 숨결

서산문화원보(비매품) | 월간 스산의 숨결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1996. 5. 9)



서산문화원



목차

- 03 가로림만에 흐르는 통한의 눈물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4 개항 이후 서산지역 천주교신앙의 확산 (김정환 / 내포교회사연구소장)
- 08 7월의 표준영정 (이이(李瑋))
- 10 유두란?
- 14 보원사지 발굴조사 (1-4차) 조사성과 (이강열 / 학예연구사)
- 16 길쌈마을 동암리 (정명재 /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 18 주희 『주자어류』 (문성환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20 대중음악과 표절 (최민우 / 대중음악 평론가)
- 23 단오한마당
- 24 한국고건축박물관
- 26 여름철 밤하늘 별자리
- 30 아이와 함께 만드는 전통음식 (이영숙)
- 32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전시회
- 33 문화원소식



표지 이야기



다 식

각종 곡물을 쪄고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만든 한국 고유 차과자이다. 보기에도 예쁘고 몸에도 좋은 다식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는 것이 어떨까?

<http://www.seosan.go.kr>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서해안의 중심도시 서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서산**으로 오세요!



해미읍성



별천포해수욕장



보원사지



마애삼존불상



철새도래지



용현계곡

● 리플렛 · 팸플렛 · 카다록 · 포스터 · 선거홍보물 외 각종 홍보물 ●

팔만대장경의 명성을 『서산인쇄공사』가 이어갑니다.

기획에서 인쇄 · 재본 · 접지 · 유통까지
전공정 시설 및 인력보유

우리나라 인쇄의 시초인 팔만대장경!
고려 고종 24년에 처음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수천만개의 글자가 하나같이 그 새김이 고르다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197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5년 전통의 『서산인쇄공사』가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산시 읍내동 285-1번지 Tel. 041)664-0001~3 Fax. 041)666-2404
E-mail : ssprint0001@hanmail.net

가로림만에 흐르는 통한의 눈물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충남 서산땅이 갯마을임은 많은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1970년대 초 서산갯마을이라는 대중가요가 발표되고부터 널리 알려진 것 같다. 낙토서산(樂土瑞山) 좋은 땅이라는 이름의 낙토가 아니어도 서산이라는 지명의 상서로울 서(瑞)자를 지명의 앞글자로 쓴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감히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높고도 강렬한 의미를 지닌 글자이기에 호재(好災)가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꺼렸던 것이리라.

그러한 서산땅은 왜 이토록 사용하기 까다로운 글자를 지명의 앞에 계속 써내려온 것일까? [瑞州 → 瑞寧 → 瑞山] 중국의 풍수학자들이 서산을 자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삼원 별자리 중 자미원(紫微垣)의 기(氣)가 집중되는 곳이 서산땅이라는 것이다. 그 기를 받는 땅에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인물이 태어난다는 설이 있기에 그 기의 땅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을 두고 그들이 서산땅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이리라.

이토록 상서로운 땅 서산을 감싸고 있던 천수만은 A,B방조제로 그 아름답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잃어버렸고 서산만은 대호방조제로 사라져버렸으며 마지막 남은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 건립을 운운하며 정부에서는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옛부터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은 어염시수(漁鹽柴水)라 했다. 즉 고기잡이가 편하고 소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땀 나무와 마실 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천혜의 조건을 고루 갖춘 서산땅이 모두 망가지고 이제 겨우 가로림만 한쪽만 남았는데 경제성도 없는 조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나날이 그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역사적 가치가 너무나 커서 어찌다 설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상 왕국이었던 백제가 대륙문물을 교류하던 교두보였고 통일신라 시대까지도 가로림만의 포구를 이용해서 중국과의 사신들이 서로 왕래하였으며 무역의 시발점이며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소중한 역사의 현장인 것이다. 그뿐이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이곳은 우리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현장이었고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꿈의 갯별인 것이다.

세계 5대 갯별 중 으뜸인 가로림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위정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이곳을 훼손한단 말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대국민 속임수의 정책으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불교 경전의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농사를 잘 모르는 대지주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다 보니 밭자국에 밟혀서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할 것 같아 평상을 매어 하인들이 매게하고 그 위에 앉아 씨를 뿌렸다한다. 여러명이 밟아서 더욱 싹트기가 어려워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통쾌하게 웃는 웃음소리가 지금도 도처에서 들리는 듯하다.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속에서 자라는 새싹이 또 얼마나 많이 짓밟혀 상처를 받고 신음할지.....오랜 세월이 흐른 훗날, 찢기어 쓰러린 상처의 아픔을 누가 책임지고 치유해줄 것인가?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것을 지키자. 세계환경기구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가로림만의 손실은 서산땅의 절반을 잃는 정도에 가까운데 우리들은 모든 꿈을 저버리고 위정자들의 입맛에 양념을 쳐줘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조상들 또는 후세에까지도 가로림만은 역사요, 문화이며 꿈이었고, 삶인 것이다. 이곳에 행복과 낭만이 있고 일터가 있으며 수많은 가르침이 있다. 가로림만에 흐르는 눈물을 이제 그만 거두도록 해야겠다.

개항 이후 서산지역 천주교신앙의 확산

김 정 환
(내포교회사연구소장)

차 례

1. 머리말
2. 서산지역의 공소들
3. 서산 본당의 설립
4. 본당의 서산 이전과 분가
5. 주목할 활동들
 - 1) 출판·교육활동
 - 2) 순교자 현양운동
6. 맺음말

1. 머리말

개항 이후 서산지역에 천주교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본당(本堂)이 어떻게 설립되고 변모하였는지를 보면 참조가 된다. 조선후기 천주교 박해기간 동안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곳곳으로 흩어졌다. 서산지역에는 박해시대부터 여러 교우촌(敎友村)들이 있었는데 그 중 박해로 인해 없어진 곳이 있고 오히려 피난 온 신자들로 인해 더 커진 교우촌들이 있었다. 이후에는

새로운 교우촌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박해가 끝난 후 초창기에 공소가 된 교우촌들은 모두 서산 외곽에 형성되었다. 박해의 영향으로 서산 도심에 본당이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 기간 동안 서산지역 천주교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은 오지에 위치한 공소들이었다. 그 공소들 중에서 몇몇 곳은 후일 서산 지역에 본당이 설립될 때에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

서산 외곽의 공소들을 거쳐 서산 도심에 본당이 자리하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본당 이전이 있었다. 이 과정들은 서산지역 천주교 확산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먼저 그 확산의 방향을 살피고 그 안에 있었던 기억할 만한 사실들을 살피려한다. 이를 통해 서산지역 천주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 글의 대상으로 삼는 지역은 2009년 현재의 서산시 지역이다. 지금은 당진군에 속한 정미면과 대호지면은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서산에 속했었다. 그곳에 있던 산성, 도산, 마중, 봉성 4개 공소는 1957년 11월 이전에는 서산 본당 관할 공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행정구역 상으로나 천주교 관할구역 상으로나 서산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이곳들은 제외하였다.

2. 서산지역의 공소들

병인박해(1866)는 천주교 신자들이 살던 교우촌의 분포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박해기간 중 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며 활동의 중심지였던 교우촌들은 초토화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내포지역의 중심 교우촌이라 할 수 있는 신리이다. 그곳은 병인박해 이전 온 마을이 다 신자일 정도였으나 박해가 끝난 후 한 명의 신자도 살지 않고 오히려 천주교를 배척하는 마을로 변해있었다.¹⁾

대원군이 실각할 때까지 계속된 처절한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교우촌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1876년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런 신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이들의 분포를 보면 박해 속에서 신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피난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병인박해 이후 서산지역을 처음 방문한 선교사는 두세(Doucet) 신부로 1884~1885년에 걸쳐

1) 뤼텔일기 1896년 10월 26일.

내포지역 전체를 돌아보았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서산지역에는 선양골 23명, 황골(팔봉면 대항리) 17명, 소길리(팔봉면 금학리) 32명, 가재(음암면 상흥리) 57명의 신자들이 거주하였다. 이 지역 신자들이 어떻게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는 한 집안의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가재를 거쳐 소길리에 정착하여 살게 된 조상환의 집안은 본래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었다.²⁾ 증조할아버지때부터 대대로 신자인 그의 집안은 병인박해의 소식을 듣고 밤을 틈타 피난길에 나섰다. 우연히 한 신자를 만나 피난처를 물으니 음암 상흥리로 가라고 하였다. 그곳은 교우촌이고 피난하여 사정을 말하면 도와줄 거라는 거였다. 이들은 상흥리에 살다가 생계를 위해 다시 한 번 소길리로 이사하였다. 소길리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신자여서 외부에서도 교우촌으로 알려진 동네였다.

위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상흥리, 소길리는 병인박해 이전부터 교우촌이었던 마을로 박해가 일어난 후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었다. 이런 까닭에 박해를 피해 외지에서 오는 신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서산지역의 교우촌들은 다음과 같다.

〈표1〉 서산지역의 교우촌(1883~1889). 출처 : 『천주교 대전교구 통계자료집』
황골(팔봉면 대항리), 원마루(운산면 수평리), 황소고개(고북면 용암리)

	소길리 (금학리)	가재 (상흥리)	선양골 (서남골)	황골	대방리	원마루	황소고개
1883~1884	?	?					
1884~1885	32명	81명	23명	17명			
1885~1886	17명	102명	26명	25명			
1886~1887	58명	52명	26명		46명	25명	
1887~1888	50명	49명	26명		48명	14명	
1888~1889	64명	54명	28명		33명		113명

표 1)에 보듯이 서산지역에서는 소길리, 상흥리 교우촌이 가장 오래되고 큰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교우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 교우촌들은 1890년 합덕 본당이 설립되면서 공소로 전환되었고 새로운 공소들도 생겨났다.

서산 본당의 모체인 수곡(홍성군 결성면 공리) 본당이 생기전의 기록(1903~1904년 보고서)을 보면 너리실(성연면 명천리), 아나미(성연면 고남리), 미력벌(운산면 용장리), 강당리(운산면 용현리), 일락골(해미면 황락리), 한티(해미면 대곡리)에 새로운 공소들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길리는 위, 아래 공소로 나눌 만큼 커졌고 한티 공소도 위, 아래로 나뉘었다.

2) 조상환, 『하산 조상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99, 11~30쪽.

특별한 것은 강당리에 공소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병인박해 때 강당리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잡혀 10여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인근의 신자들까지 합치면 기록에 나온 이들만도 22명이나 된다.³⁾ 이 지역은 박해 이후 교우촌이 사라졌으나 다시 신자들이 모여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신자들이 처형되던 해미 순교지가 멀지 않은 지역에도 공소들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서산지역이 점차 직접적인 박해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서산 본당의 설립

서산 본당의 역사는 1908년에 수곡(결성 공리)에 본당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초대 주임으로 파견된 프랑스 선교사 폴리(Polly) 신부가 수곡에 자리를 잡은 이후 1917년까지 이곳에 본당이 있었다. 그러나 박해의 영향이 점차 사라지면서 신자들은 박해의 위협보다는 교통의 편리를 따져 본당의 위치를 잡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해로(海路) 교통이 편하고 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소길리로 본당이 옮겨지면서 서산지역 안에서도 한 본당 역사가 시작되었다.

소길리에는 1917년에서 1920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만 본당이 자리하였다. 당시에는 그곳에 신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본당이 선 것이다. 1916~1917년에 작성된 통계에 의하면 소길리에는 288명의 신자가 있었다. 그런데 판공이나 대축일을 치를 때마다 다른 공소 신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보거나 미사에 참석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소길리는 지역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없어보였고 신자들마저 생계를 위해 자꾸 떠나가자 본당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네다섯 공소가 나서서 자신들의 지역으로 본당을 옮겨야 한다고 경합을 벌였다. 어떤 공소는 아예 성당으로 쓸 만한 기와집과 사제관을 짓고 운영비로 쓰도록 주변 산을 기증하면서까지 본당 유치경쟁을 벌였다.

결국 1920년 음암의 상흥리(가재)로 본당을 옮기게 되었다. 상흥리는 여러 모로 조건이 좋은 곳이었다. 신자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서산과 멀리 않은데다가 교통도 용이하였다. 그곳 신자들은 본당 유치를 위해 1919년부터 성당을 짓기 시작하여 1920년 4월 30일에 성당 축복식을 가졌다.⁴⁾ 이후 15년 동안 상흥리 본당은 서산지역 천주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3) 최석우, 『서산 지방 교회사 소고』, 『서산 동문 본당 70년사』, 서산 동문 천주교회, 1987, 338쪽.

4) 상흥리 성당은 2007년 등록문화재 338호로 지정되었다.

이이(李珥)

1536(중종 31)~1584(선조 17)

호는 율곡, 본관 덕수,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 강릉 출신.

어려서 어머니께서 학문을 배웠으며, 16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9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경을 연구하다가 다시 유학에 전심하고 23세 때 이황을 찾아가 만났다.

1564년(명종 19) 생원시, 식년문과에 모두 장원 호조좌랑에 초임되고, 1568년(선조 1) 천추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573년 직제학이 되고



조선시대의 문신, 학자

다음해 우부승지, 병조참지, 대사간 등을 지낸 뒤 병으로 사퇴했다. 그 후 황해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학문연구에 전심했다.

1581년(선조 14) 대사헌을 거쳐 대제학을 지내고 이듬해 이조, 형조, 병조의 판서, 우참찬을 역임, 1583년(선조 16) 당쟁을 조장한다는 동인의 탄핵을 받고 사직했다. 그 해 다시 등용, 이조판서에 이르러 동서분당의 조정을 위해 진력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글자에 자구해석보다 근본원리를 자유롭게 종합적으로 통찰함을 기본으로 하여,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은 기(氣)에 있으며, 모든 현상은 기가 움직이는 데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기의 작용에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모든 현상의 변화, 발전을 기의 작용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념적이기보다는 실천적 윤리를 인간의 본연의 성보다 기질의 성을 더 중요시하여, 이른바 기발이승일도설을 근본사상으로 하는 이황의 주리적인 이기이원론과 대립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의 차이는 후일 당쟁의 전개과정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제자인 김장생, 정엽등에 의하여 기호학파가 이루어지고, 이황의 제자들인 영남학파와 더불어 조선시대 유학의 쌍벽을 이루었다. 실천을 중시한 그의 학문 경향은 그의 경세관에 그대로 반영되어, 당쟁의 조정에 힘쓰며 10만 대군의 양성 및 대공수미법의 실시를 주장했으나 생전에 이루어지지지는 못했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공릉의 송담서원등에 배향되었다.

[著書] 聖學輯要, 擊蒙要訣, 栗谷全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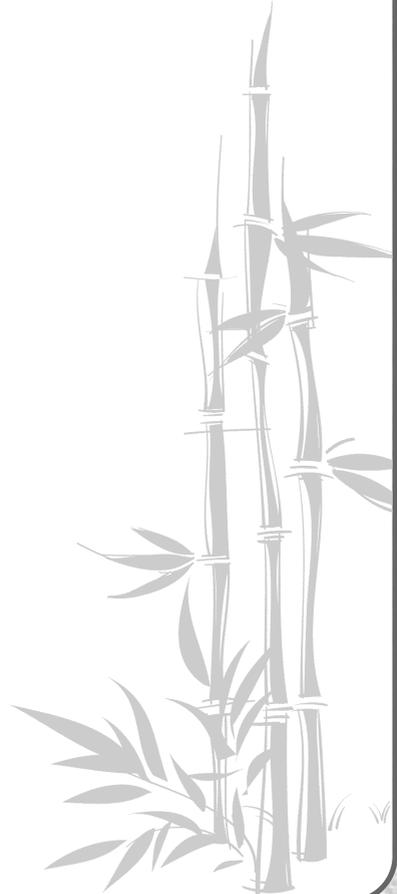
■ 영정개요 ■

표준영정지정년도 : 1975

제작작가 : 이당 김은호

영정크기 : 85cmX 150cm

소장지및소장인 : 강릉 오죽헌





유두란?

■ 천렵과 어죽 끓여먹기

6월은 계절적으로 가장 무더우며, 삼복(三伏)이 들어 있는 때이다. 따라서 보양탕(補身湯), 삼계탕(蔘鷄湯) 같은 자양분이 많은 음식으로 몸을 보(補)하기에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더위에 지쳐 발병하기 쉬운 때이므로 재액(災厄)을 면하려는 양퇴귀(禳退鬼)의 방법이 강구되었다.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이 곧 유두이다. 유두날에는 맑은 개울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특히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것은 동쪽은 청이요,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라고 믿는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풍속을 통해 불상(不祥)을 쫓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처럼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것은 물에 정화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심신을 물에 담가 더러움을 떨쳐 버리는 세계의 보편적인 습속으로 중국의 상이계욕(上巳浴), 인도의 항하침욕(河浸浴)이 그 좋은 예이며, 종교적 의식에서는 불교의 관정(灌頂), 기독교의 세례(洗禮)가 모두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유두 무렵은 새로운 과일이 나고 곡식이 여물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두의 풍속에는 조상과 농신에게 햇과일과 정갈한 음식을 차려 제를 지냄으로써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그러나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변화된 오늘날, 다양한 생산 양식에 의존함에 따라 그 풍속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유두풍속도 예외는 아니어서 의례적인 요소는 그 전승이 단절되었으며, 물맞이 풍속은 여름 휴가철 바캉스로 대체되었다.

■ 유두의 어원

유두란 말은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으로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이란 말의 약어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를 '물맞이'라고도 한다. 유두의 어원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낼 수는 없다. 하지만 유두를 신라 때의 이두식 표기로 보고, 이를 오늘날 유두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물맞이'와 관련시켜 해석하면 그 어원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즉 유두를 달리 소두(梳頭), 수두(水頭)라는 한자말로도 표기한다. 그런데 수두는 곧 '물마리[마리는 머리의 옛말]'이니 그 본뜻은 물말이 곧 '물맞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신라의 고지(故地)인 경상도 지방에서는 유두를 물맞이라고 하는데, 이로 보아 유두는 신라 때 형성된 '물맞이'의 풍속이 한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말이라 할 수 있다.

■ 유두의 풍속

유두의 풍속이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문헌상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이미 유두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3세기 고려 희종(熙宗) 때의 학자인 김극기(金克己)의 《김거사집(金居士集)》에 의하면, "동도(東都:경주)의 풍속에 6월 15일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액(厄)을 떨어버리고 술 마시고 놀면서 유두잔치를 한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유두에 대한 기록은 《중경지(中京志)》권2 풍속조에 보이며, 《고려사(高麗史)》권20 명종(明宗) 15년 조에는 "6월 병인(丙寅)에 시어사(侍御史) 두 사람이 환관 최동수와 더불어 광진사(廣眞寺)에 모여 유두음(流頭飲)을 마련하였는데, 나라 풍속은 이 달 15일에 동류수(東流水)에서 머리를 감아 불상(不祥)을 없애며, 이 회음(會飲)을 유두연(流頭飲)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경주 풍속에 6월 보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 버린다.



그리고 액막이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이를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 조선의 풍속도 신라 이래의 옛풍속으로 말미암아 유두를 속절로 삼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문헌의 기록들을 통하여 유두는 최소한 신라시대부터, 또는 그 훨씬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의 풍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최남선의《조선상식(朝鮮常識)》풍속 편에는 여인들의 물맛이 장소로, 서울에서는 정릉 계곡, 광주에서는 무등산의 물통폭포,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의 성판봉(城坂峰)폭포 등을 적합한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이승만의《풍류세시기(風流歲時記)》에는 정릉계곡 외에도 송림(松林)과 물이 좋은 악박골과 사직단이 있는 황학터(黃鶴亭:활터) 근방과 낙산 밑 등이 서울의 물맛이 장소로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

유두날의 가장 대표적인 풍속으로는 유두천신(流頭薦新)을 들 수 있다. 유두 무렵에는 새로운 과일이 나기 시작하는 때인데, 유두천신이란 이날 아침 각 가정에서 유두면·상화병·연병·수단·건단, 그리고 피·조·벼·콩 등 여러 가지 곡식을 참외나 오이, 수박 등과 함께 사당(家廟)에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당에 올리는 벼·콩·조 등을 유두벼·유두콩·유두조라고 한다. 또한 농촌에서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참외나 기다란 생선 등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논·밭의 물꼬와 밭 가운데에 차려놓고 농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그 다음에는 자기 소유의 논·밭 하나하나마다에 음식물을 묻음으로써 제를 마치게 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6월 월내조(月內條)에는 피·기장·벼를 종묘에 천신한다고 하였으며, 《예기(禮記)》월령(月令)에는 중하(仲夏)의 달에 농촌에서 기장을 진상하면 천자가 맛을 보고 먼저 종묘에 올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유두는 조상신이나 농신만을 위한 날은 아니었다. 이 날 유두천신을 마친 후 일가 친지들이 맑은 시내나 산간 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은 후, 가지고 간 햇과일과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낸다. 이것을 유두잔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철의 질병과 더위를 물리치는 액막이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또 문사(文士)들은 술과 고기, 음식을 장만하여 녹음이 짙은 계곡이나 정자에 가서 시가를 읊으며 하루를 즐기기도 하였다. 유두 무렵이면 농가에서는 모내기를 끝내고 김매기를 할 때이다. 아울러 가을보리를 비롯한 팔·콩·조 등을 파종하며, 또 오이·호박·감자·참외·수박 등 여름 작물을 수확하기도 한다. 그래서 비교적 한가한 시기인 이 무렵에 유두라는 속절을 두어 조상과 농신에 대한 감사와 풍년의 기원을 행하고자 한 것이 바로 유두의 풍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사일로 바빴던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의 여유를 가짐으로써, 닥쳐 올 본격적인 더위를 이겨내고자 한 지혜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 유두의 시절음식

이 날의 음식으로는 유두면, 건단, 수단, 상화병(霜花餅) 등이 있다. 특히 유두면을 먹으면 장수하고 더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누구나 먹는다. 밀가루로 만드는 유두면은 참밀의 누룩으로 만들 경우 유두국(流頭)이라고도 하는데, 구슬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오색으로 물들인 후 세개씩 포개어 색실에 꿰어 차거나 문에 매달면 재앙을 막는다고 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원래 국수는 긴 까닭에 장수를 뜻해서 경사가 있을 때에는 잔치 음식으로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오색 칠을 하는 것과 삼매(三枚)는 숫자가 기수(奇數)인 양수(陽數)라는 것과, 그것이 모두 축귀에 효과가 있는 숫자이며 대문 위에 걸어 두는 것도 잡귀가 드나드는 장소를 골라 벽사(邪)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유두면을 뭍에 차거나 문설주에 걸어서 잡귀를 막는 풍속이 기록되어 있다.



〈상화병〉



〈유두면〉

수단과 건단은 쌀가루로 찌서 길게 빚으며, 가늘게 썰어 구슬같이 만들어 꿀물에 담그고 얼음 물을 넣어서 먹는 것은 수단이고 얼음물에 넣지 않고 먹는 것이 건단이다. 상화병은 밀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하여 콩가루와 깨를 섞어서 꿀물에 버무려 찌서 먹는다. 《경도잡지(京都雜誌)》6월 15일조에는 "분단(粉團)을 만들어 꿀물에 넣어 먹는데 이를 수단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유두조에는 "멥쌀가루를 찌서 긴 다리같이 만들어 등근 떡을 만들고 잘게 썰어 구슬같이 만든다. 그것을 꿀물에 넣고 얼음에 채워서 먹으며, 제사에도 쓰는데 이것을 수단이라고 한다. 또 건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물에 넣지 않은 것으로 곧 찬 음식의 종류이다. 혹은 찹쌀가루로 만들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보원사지 발굴조사 (1-4차) 조사성과



학예연구사
이 강 열

보원사지는 사적 제 316호로 사역으로 추정되는 102,886㎡ (약31,123평)가 1987년에, 그 이전인 1963년에는 석조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즉 당간지주(제102호), 석조(제103호),



보원사지 전경

오층석탑(제104호), 법인국사보승탑(제105호), 법인국사보승탑비(제106호)가 해당된다. 특히 1968년에는 백제시대 금동여래입상(현재 국립부여박물관소장)이 신고품으로 수습되어 보원사지가 백제 시대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제시대에는 보원사지에 있던 많은 석물들이 실려나갔다는 주민들의 전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유물들은 그것의 일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보원사지는 이처럼 우리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함께한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지역의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인지하여 그 동안 폐사지로 방치되었던 보원사지에 대한 정비를 계획하게 되었다.

보원사지 발굴조사에 앞서 보원사지에 대한 정밀 학술지표조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2005년도에 세웠다. 이 종합정비 기본계획에는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12년동안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확인된 유적을 바탕으로 하여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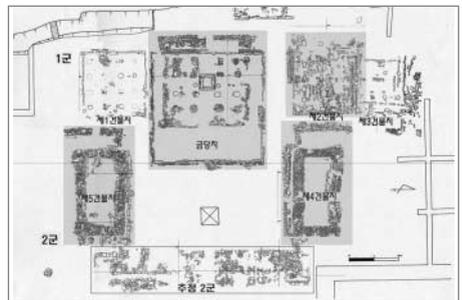


정비를 하기로 계획되었다.

보원사지는 1차에서 4차에 걸쳐 현재 발굴조사된 면적은 약 25,573㎡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총 27동의 건물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확인된 건물지 유적은 상층과 하층에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는 유적이 대부분으로 조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1차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금당지와 사역중심 건물지 등 건물지 5동과 이와 관련된 부속유적을 발굴하였고, 2차 발굴조사는 고려시대 금당지 및 21동의 건물지와 부속 유적을 확인하였다. 3차 발굴조사는 1차와 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세부 조사가 이루어졌다. 4차 발굴조사는 조선시대 금당지와 오층석탑의 주변에 있는 사역중심부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금당지와 금당지 주변으로는 5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금당지는 24기의 초석이 있고, 불상을 놓았던 곳이 확인되었다. 금당지 앞쪽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조선시대 산지가람의 양식으로 주목되어 진다. 앞으로는 기존의 조사된 유적의 하층에 있는 건물지의 존재유무와 함께 사역의 범위에 해당되는 미조사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보원사지 중심부 항공사진



보원사지 중심부 건물배치도

출토유물은 막새를 포함한 기와류, 토기류, 금속유물류, 자기류 등 약 2500여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조선시대 16세기에서 17세기 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9세기에 해당되는 토기호가 현재 보원사지에서 가장 빠른 유물로 확인되고 있다. 기와는 ‘普願寺三寶’ 명이 있는 명문기와를 포함하여 다수의 숫막새 암막새가 있고, 금속유물로는 금동보살좌상, 청동정병 등이 있다. 청자는 11세기에서 13세기에 제작된 청자연봉, 청자접시, 조선시대 백자에는 접시와 묵서명 유물이 확인된다.

유물도 보원사지의 변천과 함께 하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확인된 유물보다 빠른 시기의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발굴조사 결과 앞서 백제시대의 금동여래입상과 관련있는 유적의 존재유무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또한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은 확인되고 있으나, 관련유적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추후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보원사지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 이외의 지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보원사지를 사이에 두고 계곡사이의 평탄한 지역이 넓어지다가 좁아지는데 사역은 이 부분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추후 보원사지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원사지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이외의 곳에서도 보원사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몽ونغ역의 전통을 지켜온 길쌈마을 동암리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정 명 재

해미면 동암리는 분지마을로 북, 동, 남 삼면이 병풍을 두른 듯 당산으로 둘러쳐있고 서쪽을 바라 보며 농경지가 넓게 조성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아래쪽에는 흥천천이 길게 흐르고 자연마을로는 역말, 점촌마을이 있다. 역말은 동암리가 시작된 마을로 고려로부터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몽ونغ역이 있었으므로 역말이라 하였고 점촌마을은 역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그릇점이 있었으므로 점촌이라 하였다 한다.

1872년도에 작성된 해미현 지도에는 역촌(驛村)으로 표기되어있다. 조선시대에는 홍주의 금정 역에 속했던 역참(驛站)으로 대마(大馬) 2필 중등마(中等馬) 4필 하마(下馬) 5필 등 11필의 말을 관리하고 역리(驛吏) 57명 노비(奴婢)가 41명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마을중앙에는 수령이 300년은 훨씬 넘어 보이는 느티나무가 마을의 역사를 품에 안고 속 시원히 이야기 할 때를 기다리는 것만 같다. 70여명의 노인회 회원들은 해미의 역사가 시작된 몽ونغ역리의 긍지를 살려 마을의 전통문화가 잘 전해져서 먼 후대까지 알려 지길 바라고 있다.

조선 승정원일기에는 임금님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벼슬아치가 정배(定配), 도형(徒刑)사리를 하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동암리는 예로부터 좋은 전통을 잘 보존하며 지켜오는 마을로 면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조선시대부터 무명, 명주, 모시, 삼베를 생산해 오던 길쌈마을이다.

아들이 장성하여 며느리를 볼 때가 되면 무엇보다 길쌈을 잘하는 규수를 골랐다고 한다. 그러나 의류산업에 밀려 전통을 지켜오던 길쌈이 쇠퇴하고 80년대 초까지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삼베를 전통방식으로 생산해오고 있었으나 대마가 향정신성 환각제로 규제가 강화되어 현재에는 대마를 모두 외부에서 구입하여 삼베를 생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삼베의 생산은 대부분 마을 공동으로 삼베기, 삼긋기, 껍질 벗기기, 삼삼기, 베 날기, 베매기, 삼베 짜기 등 여러 순서를 거쳐 삼베를 생산한다. 삼베 재배기간에 바람을 맞으면 삼대가 부러지기 때문에 음력 2월 초하룻날 닭털만 날려도 그 해는 바람 피해를 걱정해 대마 심기를

꺼려했다고 한다.

동암리는 토지가 비옥하고 당산의 품속에서 여름철에 불어오는 남동계절풍을 피할 수 있어서 대마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확한 대마의 껍질을 벗겨 건조하고 물에 불려 잘게 찌어 단을 만들어 보관하다가 농한기가 되면 마을 큰방에 모여 삼껍질을 가늘게 찌서 만들어놓은 삼을 일일이 무릎에 비비며 손으로 연결해서 긴 올로 만드는 삼삼기를 하는데 손길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삼삼기를 마치면 마당에 말뚝을 박고 ‘베 날기’가 시작된다.

베 날기가 끝나면 왕겉불을 은근히 피워 말리면서 둥근 솔로 고루고루 풀을 먹이는 베매기를 한다. 베매기가 끝나면 베틀을 차려 놓고 베짜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지루하고 고된 일을 하면서 베틀가 등 노동요가 유일한 하소연이었다. 이러한 일들은 농번기를 피하여 부녀자들이 공동으로 해오던 부업이었으며 일의 순서마다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른들로부터 길쌈을 배우게 된다. 길쌈을 쉽게 배우는 새댁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

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젊은 새댁의 스승이 되어 항상 잘 모시며 존경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시집은 새댁이 길쌈을 잘하면 며느리 잘 얻었다고 동네에 소문이 나 모두들 부러워하였다. 그래서 새댁들은 시어머니를 잘 따르며 열심히 길쌈을 배우고 어른을 모시는 예의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가정과 마을이 늘 화기에애하였다.

해미읍성 삼베 짜기 시연에 이 마을의 노인들이 나와서 참여하고 있으나 이제는 삼베길쌈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전통 삼베마을의 명맥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면민들이 매우 아쉬워한다.

또한 동암리는 고려 때부터 국가 통신망이었던 역(驛)이 있었던 곳이다. 역참(驛站)은 병조(兵曹)에서 관리하며 역에는 역리(驛吏), 사리(司吏), 일수양반(日守兩班), 관부(館夫), 급주인(急走人), 마부(馬夫), 역노비(驛奴婢) 군정(軍丁), 조역백성(助役百姓) 등 역에 딸린 인원이 조선중기 상등 역에는 121인, 하등 역에는 71인 말이 10필이 있었다고하니 몽ونغ역은 상등 역에 속했던 것 같다.

말먹이가 되었던 미나리가 1960년대까지도 많이 재배되어 식용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동암리에서 언제부터 길쌈이 시작되었는지 기록은 없으나 몽ونغ역과 맥을 같이 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역리와 역노비가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보아 이들의 의복 공급과 역참의 운영을 위해 길쌈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백여년 동안 길쌈마을의 전통을 이어온 셈이다. 이러한 전통을 지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조상들의 생활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동암리 길쌈의 전통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삼베길쌈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더 늦기 전에 기능보유자를 찾고,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길쌈을 가르쳐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또한 삼베마을 동암리는 해미읍성과 함께 조선시대의 중요한 시설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마을에 기록물을 세워 후세에 전해주는 일은 우리세대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 한다.

자료를 주신 분 : 오병섭(吳炳燮) 전 해미면부면장, 전 동암리노인회장 역임

주희 『 』

문 성 환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주자(朱子, 1130-1200)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자이자 스승이었다. 주자는 결코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주자의 아버지 주송(朱松)이 관직 생활을 하긴 했지만, 주자는 사실상 가난한 집안의 수재형 인물에 가깝다. 그는 불과 열아홉의 나이로 중국 과거시험을 통과했다. 그리고 거의 혼자 힘으로 남송(南宋)의 사상계를 짚어낸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

주자의 학문은 선배들의 작업을 한 데 모아 묶어내는 데서 시작되었다. 주자는 『시경(詩經)』·『서경(書經)』·『역경(易經)』·『예기(禮記)』 등의 경서(經書)에 방대한 주석 작업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중용(中庸)』을 사서(四書)라는 이름으로 묶어 주석 작업과 함께 편찬하고, 이를 경전화시켰다(죽기 사흘 전까지도 주자는 『대학』에 관한 경구 해석에 매달렸다!). 그런가 하면 주자는 친구인 여조겸과 함께 자신이 존경하는 북송대의 선배 유학자의 글을 편집하여 『근사록(近思錄)』이란 책을 편찬하기도 했다.

주자에 의해 편찬된 사서는 유학의 공식적인 해석으로 인정되어 1313년부터 과거 시험의 척도가 되었다. 주자학의 영향력은 1912년 과거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사실은 주자의 사유가 700여년간 한 세계(사실상 중국은 당시 세계 그 자체였다)의 학문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 문인들과의 강학 및 대화를 기록한 방대한 양의 『주자어류(朱子語類)』는 바로 이러한 주자의 세계관과 학문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주자학의 가장 충실한 기본 텍스트이다.

이와 같은 주자의 철학 정신은 한 마디로 ‘집대성(集大成)’이란 말로 요약된다. 요컨대 주자의 철학적 관심은 새로운 개념의 창안에 있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자의 작업이 단순히 흠어져있던 선배들의 자료를 한 데 모아놓았다는 식의 의미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집대성이란, 말 그대로 한 데 모아 크게 이루었다는 뜻이다. 어떤 의미에서 주자는 ‘풀어서 조술하되 창작해서 짓지는 않는다’는 공자의 술이부작(述而不作) 태도를 온몸으로 이어받은 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데 모아 크게 이루었다는 주자의 학문은 성실과 근면, 그리고 끈기로 푹푹 뭉친 한 인물이 펼친 위대한 작업에 대한 존경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주자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한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이곳저곳에 산재해있던 선배들의 보석 같은 사유를 일관성 있는 구도로 분류·탐구한 품격 높은 철학자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자학은 앞선 문헌들에 대해 유학의 전통적 해석들에 전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 이차적 해석에 지나지 않을 듯한 이 주석 작업을 우리는 주자학(朱子學) 혹은 리기론(理氣論)이라고 부른다.

리(理, 이치)와 기(氣, 기운)! 주자의 기본 구도는 간단하다. 하지만 이 간단한 사유의 틀로 주자는 우주론으로부터 존재론으로, 인식론으로부터 윤리론 사이를 종횡무진 넘나든다. 리기론이란 간단히 말해 세상 모든 현상[기(氣)] 이면에는 그 이치[리(理)]가 존재한다는 사유이다. 예컨대 하늘에는 하늘의 이치가 사물에는 사물의 이치가, 사람에게에는 사람의 이치가 각각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이치들은 또한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또 다른 이치를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원래 리(理)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이치가 각기 다른 수많은 존재로 현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밤하늘에 달이 떠오르면, 천 개의 강과 호수마다 그 달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간혹 날이 흐려 달이 구름에 가려진다면 천 개의 달은 구름에 가려진 모습으로 드러난다. 즉 천 개의 달은 하늘의 달에 의해 그 존재 작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달과 천 개의 달 사이의 관계가 서로 종속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천 개의 달의 존재 이유가 되는 하늘의 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강과 호수라는 구체적 작용이 아니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다. 요컨대 하늘의 달 또한 천 개의 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늘의 달과 강물 위에 뜬 천 개의 달을 같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하늘의 달과 강과 호수 위에 떠오른 천 개의 달은 어떤 관계인 것일까.

천지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사람의 마음이 되고, 사물이 그것을 얻으면 사물의 마음이 되고, 초목과 짐승이 그것을 얻으면 초목과 짐승의 마음이 되니, 오직 천지의 마음 하나일 뿐이다. 『주자어류』

주자는 하나의 달이 천 개의 달로 떠오르는 것은 하나의 이치(理)를 수많은 존재들이 나눠 갖고 있는 것[리일분수(理一分殊)]이라고 했다. 천 개의 달은 하나의 달을 천 개로 조각내 나눠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천 개의 달은 저마다 각각 하나의 달을 품고 있다. 다만 그 천 개의 강마다 서로 다른 기질적 차이 때문에 하나의 달은 천 개의 강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강은 지형에 의해 일그러질테고, 어떤 강은 조도(照度)에 의해 더 하얗게 빛나거나 어둠 속에 잠길 것이고, 또 어떤 강은 달은 크거나 작게 현상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하늘의 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이 각각의 달들은 저마다의 조건[기질]에 따라 단 하나도 똑같은 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자는 말한다. 리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으며[불상잡(不相雜)],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불상리(不相離)]고. 하지만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능케하는 이치가 있다는 주자의 생각은 사실상 기(氣)보다 리(理)가 선차적인 것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물론 주자는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리가 기에 선행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순간, 주자의 리기론은 천 수백년 간 이어온 기(氣)중심의 중국 철학 전통을 근본에서부터 뒤집는 혁명을 시작한다.

사실 리이니 기이니 하는 것을 따지는 건 문제의 본령이 아니다. 주자는 언제나 인간의 능력이 그러한 이치들을 반드시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주자는 말한다. ‘인간의 영명(靈明)함은 알지 못하는 게 없다. 다만 그 이치에서 아직 다 궁리하지 못했을 뿐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탕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움을 통해 앎의 영역을 넓혀간다면, 어느 순간 세상의 이치를 모두 꿰뚫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앎의 의지를 통한 인간의 긍정!



대중음악과 표절

최근 대중음악계를 달군 ‘핫 이슈’는 이효리의 표절 사건이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략의 내용을 접했겠지만 혹 처음 듣는 이들을 위해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 4월 이효리는 본인이 프로듀서를 맡은 네 번째 음반을 발매했다. 그런데 음반이 발매된 직후부터 표절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한두 곡이 아니라 음반 수록곡의 절반에 가까운 대여섯 곡이었다. 이 곡들은 모두 ‘바누스 바쿰’이라는 작곡가 집단의 리더 바누스가 작곡한 곡이었다.

사정을 알아본 결과 그가 외국의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의 곡들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그걸 마치 자신의 곡인 양 포장해서 이효리 측에 넘긴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효리는 자신의 팬 카페에 이 사실을 공개했고, 4집 활동을 중단했으며, 바누스를 고소하기로 했다. 그녀가 스스로 표절을 인정한 데 대해 한쪽에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칭찬이, 다른 한편에서는 ‘당연한 일 일 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이 맞서고 있다.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하건 간에, 이 사건이 드러내는 바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표절이 민감한 동시에 둔감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민감한 문제라 함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많은 이들이 인기 가수의 신곡이 나오면 우선 그 곡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의심한다. 인터넷에는 순식간에 그 신곡과

많은 외국의 곡들이 뜬다. 이 와중에 그저 음악 스타일이 비슷한 것에 불과함에도 표절로 매도되는 곡들도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가수나 작곡가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겠지만, 실제로 짜증날 정도로 외국의 히트곡들을 대놓고 베낀 노래들이 판을 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싫건 좋건 이 문제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즉 이 문제에 있어서 음악을 만드는 쪽은 자신들이 마냥 억울하다고 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둔감하다 함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표절 논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문제가 뚜렷한 결론을 맺은 적은 사실상 없다. 어떤 곡이 표절인지 아니면 그저 닮았을 뿐인지를 가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심지어는 거의 따온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이는 경우조차도 ‘심증’에 비해 ‘물증’은 적은 것이 표절 문제다. 이효리의 경우처럼 빼도 박도 못하게 밝혀지는 것은 정말 드물다.

여기에 대중음악은 보통 유행의 주기가 빠르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싱글 중심으로 활동 주기가 바뀐 지금은 더욱 그렇다. 한 곡으로 두세 달 정도 활동할 뿐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면’ 논란은 지나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곡으로 장사를 할 만큼 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이러하면 표절당한 측의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따로 ‘조용히’ 해결하면 된다(로열티를 원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그래서 표절 ‘논란’은 끊이지 않지만 결과는 늘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연히 표절에 둔감해지게 된다. 그저 ‘안티’들이 ‘떠들다 마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해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음악에서의 표절은, 앞서서도 말했듯 제도적으로 가려내기가 정말로 어렵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다. 이효리의 행동이 ‘신선’해 보이는 것은 적어도 그녀가 본인에게 돌아올 비난과 책임을 무릅쓰면서까지 표절 사실을 자기 입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본 적이 없었던 일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걸 '양심적인 일'이라 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더불어 수용자가 더 매몰찬 필요가 있다. '우리 오빠'나 '예쁜 조카들'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마음에 누가 봐도 분명히 베낀 곡에 대한 비난을 막는(시쳇말로 '실드를 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음악에 별 관심이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런, 정말로 음악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치시던 실드를 계속 치시면 된다. 그것까지 어쩔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음악을, 창작자들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린 흔적이 드러나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안이하게 외국 곡을 번안이나 하는 노래들에 대해서는 보다 매몰찬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수용자의 '양심'이다.



글쓴이 소개

최민우

- 대중음악 평론가
- 대중음악웹진 [weiv](<http://weiv.co.kr>) 편집장

단오 한마당

지난 6월 13일 오후 3시 중앙호수공원 광장일대에서 서산문화원에서 주최한 단오한마당이 개최되었다. 본래 6월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13일 오후 3시로 연기되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양 6.16)로 태양의 기가 가장 왕성한 날을 기리며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4대 명절중 하나이다.

이러한 단오의 의미를 되살려 중앙호수공원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마당을 마련하였으며 서산시민 약 1,0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오전에 잠시 비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참석한 학생들과 가족들을 맞이하기라도 하듯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되었으며 마패예술단의 흥겨운 판굿으로 단오한마당의 막을 열었다. 이어 윷놀이, 팔씨름, 투호, 단체줄넘기 등 민속놀이로 꾸며진 민속놀이 마당, 수리떡 만들기, 단오부채 만들기, 창포삼푸만들기 등이 마련된 단오 체험마당이 펼쳐졌다.

특히 다양한 단오체험마당과 사회자의 능숙한 진행 속에 가족이 참여하는 민속놀이 경기는 큰 호응을 얻었다.

곳은 날씨로 행사가 미루어져 걱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고 소중한 우리의 세시풍속을 되살리고 가족간 화합과 화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단오한마당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기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고건축박물관

한국고건축박물관은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에 위치하여 수덕사를 비껴 차로 5분 정도 달리면 자리하고 있다. 인간문화재 대목장(大木匠) 74호 전홍수 선생이 7000여평의 땅에 사재 130억원을 들여 손수 짓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건축박물관이다.

한국고건축물은 우리 민족정신이 담긴 생활의 공간이다. 선조들의 생각, 나아가 우리의 정신을 알고 익히기 위해 현존하는 고건축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고건축박물관이다.

정문은 강릉 객사문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으며 1,2전시관과 야외전시관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전시관에는 국보 제1호 송례문을 비롯한 부석사 조사당, 도갑사 해탈문 등의 축소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국보 제1호 송례문 모형은 2008년 송례문 화재로 인한 복구 자료를 위해 “송례문 복구 정부 합동대책본부”로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제2전시관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사원 건축모형을 전시하고 있으며 무위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봉전사 대웅전 등의 모형이 있다.

야외전시관에는 팔각정, 객사문, 사진전시관 등이 세워져 있으며 특히 팔각정은 전통 팔각정



양식을 그대로 복원해 놓아 화려한 단청과 고건축의 백미를 보여준다. 팔각정에 올라 박물관과 주변 자연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인근에는 수덕사, 덕산온천, 추사 고택, 예당저수지 등 가볼 만한 명소도 많다.



그 어떤 박물관보다도 혼이 담긴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한국고건축박물관이다. 대목장이란 나무로 집 짓는 일에서 마름질, 기술설계, 공사, 감리까지 겸하는 목수이다. 대목장은 선대의 기술을 전수받아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박물관장 전홍수 대목장은 18세부터 목수일을 시작하여 창덕궁 가정당, 도봉산 망월사 대웅전, 종각 등 수백채의 고건축 문화재를 보수, 해체, 복원하고 고건축에 일평생을 바친 장인이다. 1998년 준공에 들어가 아직도 박물관을 건립중이지만 거대한 박물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후손들에게 역사의 선물이자 유산으로 남기고자 한 한국고건축박물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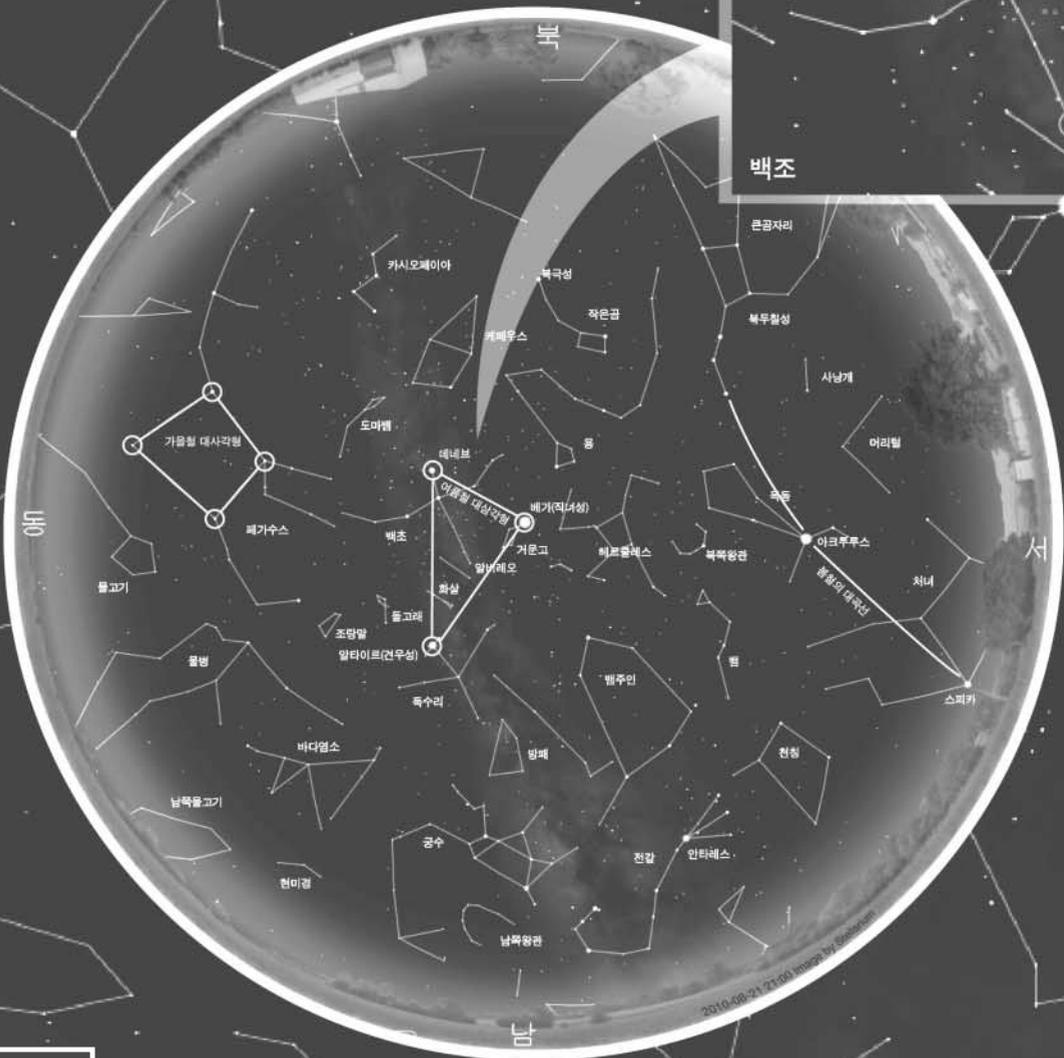
박물관명 : 한국고건축박물관

주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18

연 락 처 : 041) 337-5877

홈페이지 : <http://www.ktam.or.kr/>

여름철 밤하늘 별자리



늘밤 하늘에 무엇이 보일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빛 물결의 은하수가 천정부근에 높이 떠오를 때면, 한낮의 무더위는 서쪽 지평선 아래로 숨고 은은한 풀벌레 소리와 함께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 별자리가 뜨거워진 대지를 천천히 식혀준다.

한 낮의 무더위는 시원한 저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밤하늘 별자리와의 만남을 반갑게 해준다. 여름철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별자리 친구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자.

여름철 밤하늘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의 모습일 것이다. 은빛 물결이 흐르는 듯한 은하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은하수 위로 날아가는 커다란 백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밝은 별들만을 이어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놓여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제우스신이 백조로 변신해서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Leda)를 만나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만든 별자리라고 한다. 백조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알비레오(Albireo)는 아름다운 이중성이다.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보면 금빛의 3등성에 푸른빛을 띤 작은 별이 착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중성 - 알비레오(Albir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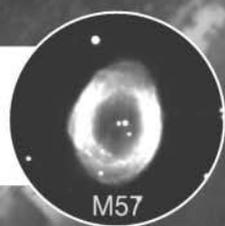
온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중성인 알비레오는 백조의 부리를 뜻한다. 금빛과 푸른빛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알비레오의 서쪽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하얀 별을 찾을 수 있다. 이 별이 바로 거문고자리의 베가(Vega)이다. 동양에서는 직녀라고 부른다.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Orpheus)가 그의 아버지 아폴론에게서 선물로 받은 하프이다. 베가는 온 하늘에서 5번째로 밝은 백색별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별들 중에서는 시리우스와 아크투루스 다음으로 3번째로 밝은 별이다. 지구에서 약 26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은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 약 1만 2000년 뒤에는 북극성이 된다.



성운 - M57 고리성운(Ring Nebula)

최초로 발견된 행성상 성운으로 거문고자리의 남쪽에 위치한 베타별과 감마별 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문고자리에서 은하수 건너편을 살펴보면, 독수리자리의 1등성인 알타이르(Altair)를 만나게 된다.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와 거문고자리의 베가, 그리고 백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데네브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커다란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세 별을 이어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여름철 대삼각형이라 부르며, 여름철 다른 별자리를 찾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 견우와 직녀 이야기

거문고자리의 베가와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직녀성과 견우성으로 불리고 있다. 은하수를 중심으로 두고 떨어져 지나다 음력 7월 7일에 딱 한번 만날 수 있는 연인으로 다시 1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 함을 슬퍼하며 흘린 눈물이 지상에 비로 내렸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 견우성은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가 아닌 더 남쪽에 위치한 염소자리의 베타별 다비흐이다. 실제 견우는 약 3등급의 다소 어두운 별로 날씨가 맑고, 달이 없는 날 밤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거문고자리 서쪽에는 하늘에서 가장 웅망한 영웅인 헤르쿨레스가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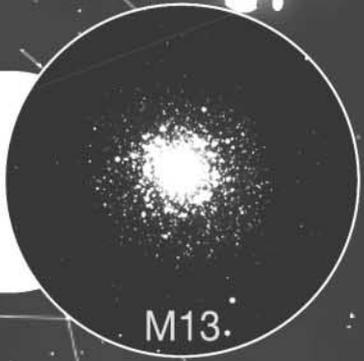
무릎을 꿇고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특별히 밝은 별은 없지만, 중심 부분에 H자 모양으로 펼쳐진 별들이 헤르쿨레스의 몸체이다. 직녀성과 왕관자리 중간에서 볼 수 있다.

헤르쿨레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로 태어나 헤라 여신의 미움을 받아 온갖 고통을 겪는다. 결국 그는 자유를 얻는 대가로 12가지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헤르쿨레스의 12가지 과업'이다.

12가지 과업을 마치고 행복한 삶을 살다 그를 믿지 못한 아내의 실수로 최후를 맞게 된다. 헤르쿨레스 자리에는 북반구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멋진 구상성단이 있다. 약 22,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구상성단은 약 50만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지름은 100광년이나 된다.



성단 - M13 구상성단
 하늘 상태만 좋다면 맨눈으로도 희미한 성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수 많은 별들이 몰려 있는 북반구 하늘에서 가장 밝고 멋진 구상성단이다.



독수리자리 남쪽에 위치한 주전자 모양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다. 반인반마인 켄타우르가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의 궁수자리이다.

신화에 의하면 이 별자리의 주인공인 켄타우르는 케이론이며, 그는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피를 찾아 나선 제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별자리를 자세히 보면, 궁수의 모습보다는 주전자의 모습으로 상상하기 쉽다.



주전자 (Teapot) 별
 궁수자리의 붉은 원으로 표시된 영역은 주전자의 옆모습으로 상상하기 쉽다.

전갈자리는 궁수자리 서쪽에 있는 S자 모양의 별자리로 남쪽 지평선 위에서 볼 수 있다. S자의 윗부분에 있는 붉은 색의 1등성이 특히 잘 보이기 때문에 찾는 것은 어렵진 않다. 다만 S자 끝에 있는 전갈의 꼬리 부분과 그 동쪽의 궁수자리 별들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별자리는 헤라 여신이 사냥꾼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 풀어 놓은 전갈이다.

이 별자리의 알파별인 안타레스(Antares)는 화성의 라이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별의 붉은 빛이 화성과 비슷한데다, 황도에 가깝게 있어 2년에 한 번씩 화성이 근처를 지나가며 그 붉은 기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천시원

서양별자리의 뱀주인과 뱀자리에 해당하는 영역은 동양의 천시원에 해당된다.

천시원은 하늘나라 시장을 둘러싼 담이다. 이곳은 일반 백성의 삶에 관련된 별점을 나타낸다.



천시원을 이루고 있는 별자리들

- 열사 : 보석상 별자리
- 도사 : 하늘나라 푸줏간
- 두, 곡, 백도 : 도량형 별자리
- 제좌성 (임금별자리별) : 옥황상제의 지정석 (서양별자리 헤르쿨레스의 라스알게티)
- 측후관별 후성 : 자연의 변화를 관찰. (서양별자리 땅꾼자리 으뜸별인 라스알하게)
- 종인 : 문종의 일원으로 고대에는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친척의 서열을 바르게 하는 일을 맡던 일종의 벼슬 이름이었다.
- 종정 : 옥황상제 친척을 관리하려고 중국 주나라 때부터 두었던 벼슬이다.

출처 :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소식지 "류별"



아이와 함께 만드는 전통음식

이 영 숙

지난 5월 서산문화원에서 안내 문자 한통을 받았다. “서산문화원 전통음식체험 참가자모집”. “아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고 바쁜 일상 탓에 잠시 잊어버렸지만 문득 문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보니 아직 두자리가 남았다고 한다. 운이 좋구나! 얼른 문화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아이한테 설명을 하니 너무나 신나고 좋아해서 신청하길 잘 했다 생각이 들었다. 다식과 과편을 아이와 함께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나도 먹어는 보았지만 직접 만들어 본 기억은 없는 듯하고 내 아이한테 정말 소중한 체험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체험당일 잊지 않도록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는 세심한 배려와 하필이면 체험시간에 늦어서 마음이 조마조마 하는 차에 운전조심해서 오라고 전화까지 정말 고마웠다.

전통음식체험 첫 번째 체험시간이라고 하니 기분도 좋고 다식과 과편 만드는 설명을 강사님께 들은 아이는 벌써 신이 난 것 같았다.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서 다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는지를 설명하니 자기도 집에 가서 차 마실 때 같이 먹어볼 거라면서 참 좋아했다. 문화원 직원분들이 옆에서 재료 하나하나 까지 챙겨주시어 체험하는 동안 불편 없이 할 수 있었다.

다식과 과편, 어쩌면 지금 자라는 우리 아이한테는 조금 낯선 단어일지도 모른다. 사실 어른들한테도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 하지만 책에서만 보았던 전통음식을 직접 엄마와 함께 다식틀에

연꽃모양을 찍어보고, 차와 함께 먹는다는 것도 배우고, 본인이 만들어서인지 맛도 좋다면서 자주 만들어 먹고 싶다고 말한다.

가정에서는 재료준비의 번거로움이 있는데 체험을 통하니 간단하면서도 아이한테 이해도 쉽고 우리의 전통음식도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체험이었다. 보통은 눈으로만 보는 전통체험인데 이번에 직접 만들어 보고 먹어 보는 체험이라서 아이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듯 싶다.

너무 재미있고 해서 체험이 끝나자마자 다음에 하는 원소병과 밤초 체험까지 미리 신청하고 체험까지 마쳤다. 아이는 너무 재미있고 맛도 좋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봐서인지 하는 과정까지 잘 기억을 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것을 할까 기대가 된다면서 설레는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다.

우리 아이들한테 책이 아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앞으로 많이 생겨서 잊혀져가는 우리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줬으면 한다. 요즘 아이들도 쉬는 토요일에 이런 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전통음식 체험을 통해 부모와 아이한테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문화원에 감사드린다.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전시회

지난 6월 29일(화) 10시 30분 서산문화원은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서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는 서산지역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4개월간 운영되었으며 34개 반 500여명의 수강생이 수강하였다.



수료식 식전행사로 다도교실 수강생들이 다도시연 및 티아트를 선보여 수강생들이 시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고를 축하하는 서산문화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수료식을 시작하였으며 지역문화학교 강사중 최보승 다도강사와 이정례 민요강사를 선정하여 공로패를 시상하였다.

이어 다도의 34개 과목의 수강생 수료증 수여와 개근상, 모범상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발표회에서는 중국어교실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바이올린, 전통무용, 플룻, 요가, 난타, 전통민요, 장구교실 수강생들의 무대가 펼쳐져 흥겨운 춤과 아름다운 음악, 열정적인 배움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발표회장 옆에 마련한 전시실에서는 가베지도사, 네일아트, POP예쁜글씨, 폼아트, 서예, 한국화, 도예, 어린이북아트지도사, 리본공예, 아이클레이, 바른글씨 예쁜글씨의 작품이 전시되어 그 동안의 수업 내용과 향상된 작품 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전시작품은 6. 29~ 7.1까지 3일간 전시된다.



하반기 지역문화학교는 8월 중 모집예정으로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며 8월 중순경 접수 예정이다.



문

화

원

소

직

■ 찾아가는 다도교실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올바른 예절과 우리나라의 다도문화를 가르칩니다.

- 일 시 : 2010년 7월 2일~14일
- 대 상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 장 소 : 가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성초등학교 학생



■ 박첨지 놀이 공연 (청소년을 찾아 나선 박첨지)

충남도지정 무형문화재 26호로 서산지역에서 전해내려오는 유일한 민속인형극인 “서산박첨지놀이”가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공연합니다.

- 일 시 : 2010년 7월 5일~16일
- 장 소 : 서산서림유치원, 부석초등학교, 음암초등학교, 대산중학교,
성연초등학교, 인지초등학교
- 프로그램 : 박첨지 놀이 공연감상, 탈 제작 체험,
인형극 체험 “나도 박첨지”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 김웅환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임갑순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240,000원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30,000원 |
| • 이정례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값지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